

금호그룹 '화색' 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CJ가 예상을 웃도는 가격에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면서 금호아시아나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게 됐다. 그만큼 유동성에도 숨통이 트이면서 그룹 경영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대한통운 채권단은 전날 CJ그룹을 대한통운 주식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본인할에서 포스코와 삼성SDS

컨소시엄은 주당 19만1500원을 제시한 반면, CJ는 21만5000원을 써내 가격 경쟁에서 압도했다. 대한통운 매각 지분과 별도로 입찰을 받은 금호산업 보유 금호리조트 지분 50%에 대해서는 CJ와 포스코 모두 800억원 내외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과 CJ GLS가 5대 5로 공동 투자해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 18.98%와 18.62% 등 총 37.6%(858만주)를 사들일 계획이

다. CJ그룹의 자금 배팅으로 아시아나항공은 큰 이익을 챙기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예초 예상했던 주당 17만원을 크게 웃도는 21만5000원에 매각가격이 결정되면서 주당 약 4만원의 매각이익을 보게 됐다. 지분 18.98%인 433만주를 매각하면 총 이익은 1732억원, 아시아나항공으로 유입되는 현금 93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금호터미널 등 대한통운 자회사의 재인수 금액을 빼면 실질

현금유입은 5694억원으로 추산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대한통운 매각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구조조정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 계열사 실적 개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류와 창고를 아우르는 좋은 기업을 매각하게 돼 많이 아쉽다는 것이 사원들의 전반적인 기류"라고 전하고 "이제 몸집을 많이 줄여 채급을 가볍게 한

만큼 생산성을 강화하고 실적을 올리는 일만 남았다"며 그룹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 금호타이어도 흑자로 반전됐기 때문에 금호건설만 어느 정도 살아나다면 그룹 회생 일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일렉 매각 결국 원점으로

엔텍할 이어 일렉트로룩스와도 결렬... 재입찰 추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작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엔텍할과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일렉트로룩스도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

대우일렉 채권단 관계자는 29일 "기존 대상자와 협상을 엮던 일로 하고 재입찰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입찰을 바꾼 것은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가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를 해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입찰 때 6000억원을 총인수가격으로 써낸 일렉트로룩스는 실사 결과에

따라 5% 이상 가격을 깎을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입찰 마감 후 응인되는 가격 인하폭은 5% 이내다.

일렉트로룩스는 대우일렉 자산 일부의 분할 인수 가능성도 타진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인수자금을 입금하지 않아 지난달 말 협상이 종료된 엔텍할이 최근 채권단을 상대로 대우일렉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도 채권단에 부담을 줬다. 채권단은 측은 엔텍할이 대우일렉 인수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수출·소비 성장세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수출 호조에 소비도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지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을 보면 4월 중 제조업 생산은 광주의 자동차 증가폭 축소와 전남의 화학제품 감소 전환 등으로 전남의 17.7% 증가에서 9.2%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4월 중 광주·전남 건축착공 면적은 전남의 9.1% 증가에서 6.5% 증가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건축허가 면적은 광주는 전남 4.3%에서 -68.0%로 대폭 감소했으며 전남은 전남 26.8%에서 24.7%로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4월말 현재 717가구로 5개월 연속, 전남지역은 4월말 현재 1885가구로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임동률기자 exian@

CJ, 대한통운 인수에 '통큰 베틀' 유동성 숨통... 경영 정상화 탄력 "이제 숙제는 계열사 실적 개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CJ가 예상을 웃도는 가격에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면서 금호아시아나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게 됐다. 그만큼 유동성에도 숨통이 트이면서 그룹 경영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대한통운 채권단은 전날 CJ그룹을 대한통운 주식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본인할에서 포스코와 삼성SDS 컨소시엄은 주당 19만1500원을 제시한 반면, CJ는 21만5000원을 써내 가격 경쟁에서 압도했다. 대한통운 매각 지분과 별도로 입찰을 받은 금호산업 보유 금호리조트 지분 50%에 대해서는 CJ와 포스코 모두 800억원 내외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과 CJ GLS가 5대 5로 공동 투자해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 18.98%와 18.62% 등 총 37.6%(858만주)를 사들일 계획이

2011年度 第1回 臨時總會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폐”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최상준·남화토건 대표이사)는 29일 화순군 도곡면 도곡스파랜드에서 ‘2011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역 건설사 대표들은 ‘최저가낙찰제 100억원 이상 확대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국세청 대규모 쇠신인사

광주 세무서장에 이민수씨 서광주 세무서장 신규석씨 북광주 세무서장 이주한씨

국세청이 30일자로 본청과 수도권 조사국장을 대거 교체하는 쇠신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 변화에 위해 총 86명의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직 간부들이 각종 비리로 잇따라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 국세청과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등 수도권의 세무조사 아전 사령관격인 조사국장 9명중 5명이 자리를 바꿔 쇠신인사의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본청 조사국장에는 행시 28회로 세무조사에 밝은 임환수 서울청 조사4국장이 배치됐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김영기 중부청 조사1국장, 심충세무 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는

하종화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앉았다. 서윤식 중부청 조사3국장도 이승호 부산청 조사1국장은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3국장으로 이동했다.

또 김은호 서울청 조사2국장은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김연근 본청 조사국장은 개인납세국장으로, 이전환 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산지방청장으로 수평이동했다.

29일 명예퇴직인 이성규 광주지방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후임으로는 김성준 나주세무서장이 배치됐다. 또 국세청 이민수 서기관은 광주 세무서장, 신규석 광주 세무서장은 서광주 세무서장, 이주한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은 북광주 세무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고재호 서울청 신고관리과 부가계장은 북전주 세무서장, 송상성 국세청 세원정보 1계장은 여수 세무서장, 정용대 국세청 전자세원 1계장은 정을 세무서장, 안양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2계장은 나주 세무서장으로 이동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 28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매리어트 웨딩홀에서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개최한 '브랜드 매니저 초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한 백화점 내 협력업체 사원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광주 신세계 제공>

광주 신세계 “백화점 협력사원을 고객처럼”

유통업계 최초 '브랜드 매니저 초대회' 행사

“백화점 협력사원을 고객처럼 모시겠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지난 28일 서구 매리어트 웨딩홀에서 지역 유통업계 최초로 '브랜드매니저 초대회' 행사를 갖고 백화점 협력사원들과 우의를 다졌다.

광주 신세계는 업무종료 후 백화점 내 협력업체 브랜드매니저(숍마스터) 500여명을 초청, 백화점 직원들이 나비 넥타이를 착용한 채 직접 홀서비스를 담당하고, 장

기자를 선보이는 등 협력업체 사원들을 고객처럼 응대했다.

광주 신세계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마련한 이 자리는 조창현 대표이사의 아이디어로 실현됐다. 지난 5월 조 대표는 상반기 동안 고생한 브랜드매니저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고심했고, 1달여 준비 끝에 단 하루지만 백화점 직원과 협력사원이 업무 관계를 떠나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깜짝 공연으로 가수 김원준이 무대에 오른것은 지난 3일 백화점에서 김원준 초대회가 열린 당시 브랜드 매니저들이 매장을 지키느라 공연을 보지못해 아쉬워했다는 말을 듣고 재초청한 것으로, 조 대표의 협력사원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

정미란 브랜드 매니저는 “10년 넘게 유통업계에 있으면서 우리들만을 위한 공연이 열린 것은 처음이었다”며 “평생 추억에 남을만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우리금융지주 입찰 국내 펀드 3곳 참여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국내 펀드 3곳이 뛰어들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 제출 마감시간인 이날 오후 5시까지 MBK파트너스, 이고펀드, 티스톤파트너스 등 국내 사모펀드(PEF) 3곳이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LOI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094.42 (+31.51)
코스닥지수	476.57 (+1.92)
금리 (국고채 3년)	3.77% (+0.05)
원·달러 환율	1076.80원 (-6.7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KOREA LEGAL AID CORPORATION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여러분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2011년 7월 화순·보성·고흥 지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년에도 농어촌, 무변촌(無辯村)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7월 1일 화순·보성·고흥에 공단 지소를 개소합니다. 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이젠 변호사를 만나러 먼 광주·순천까지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여러분 곁으로 가겠습니다!

관할	지소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광주 지부	화순지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 48 KT 화순 프라자내 3층	061-375-7806
	보성지소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95-14 보성 매일시장 2층	061-852-7804
	고흥지소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7-3 고흥읍사무소 별관	061-835-7806

○ 개 소 일 : 2011년 7월 1일
○ 상담시간 : 월~금 오전 10:00 ~ 오후 5:00

공단은 전국의 법률보호 취약지역에 이동 법률상담 차량을 운행합니다.

도어드리는 일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소액사건심판권 적용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